

THE LAST SUPPER

(14)When the hour had come, He reclined at the table, and the apostles with Him. (15)And He said to them,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 (19)And when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0)And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Luke 22:14~20)

We are starting this first Sunday of Lent season in remembrance of Jesus' Last Supper. At His Last Supper, Jesus told His disciples,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Lk. 22:15~16). Jesus made it clear that His Last Supper was a very serious and special time. For Him, it was a time of joy and sorrow: joy for the immense love, abundant life, and eternal promise to come, and sorrow for the cruel betrayal, intense suffering, and temporary death to come. Indeed, this amazing Last Supper was the most contradictory table, but through it Jesus revealed God's salvation plan.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this simple affair would have such far reaching and extraordinary blessings?

At His Last Supper, Jesus reiterated to His disciples that He would not have this supper agai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for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Lk. 22:18). Matthew 26:29 gives us a little more detail to His meaning,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The attention is directed toward the disciple's eventual reunion with Jesus in heaven. Jesus is going to wait until heaven is fully established to share this meaningful supper with us. He is going to delay His joy and fellowship with us until all God's people can partake. Until that time, He will go without but He specifically asks that we continue to participate.

At His Last Supper, after He had taken some bread and given thanks, Jesus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Lk. 22:19). Jesus wants us to remember Him by His Last Supper. When we take the bread, we are to remember that Jesus gave us His body. He sacrificed His holy body for you because He truly loves you. This is simply the most beautiful thing to receive. As you receive the bread today, please remember Jesus' loving sacrifice. He died to save you from eternal death. He died so that you can have an abundant life filled with God's

peace, joy and great love forever. Jesus obeyed His Father's will and He asks for you to now obey His.

At His Last Supper, in the same way as Jesus took the bread, He also took the cup after they had eaten, saying, "This cup which is poured out for you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Lk. 22:20). Jesus wants us to remember that His blood established a new covenant between God and you. His blood poured out of His body in death, so that your sins could be forgiven. This is simply the greatest kind of love to receive. John 13:1 tells us,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On the cross, Jesus displayed the fullest extent of His love. Even though so many betrayed, cursed, and hated Him,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naked, and you did not clothe Me;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visit Me," He still loved(Mt. 25:42~43). Jesus still loves you, and He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is earth,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20). As you receive the cup today, please remember Jesus' sacrifice.

After His Last Supper, just eighteen hours later, Jesus died. During that time, He was beaten, cursed, and finally crucified. The whole world should remember His Last Supper, His sacrifice, His love, but they do not. Even Jesus' disciples didn't realize at the time the gravity of their last meal with Jesus. Do you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is affair? Jesus became the Passover food for billions and billions of people. His love gives us encouragement to persevere until our end,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having concluded this, that one died for all, therefore all died"(2Cor. 5:14). All believers are regarded by God as having died in Christ, so that they may be able to live to please Him. Let's come together now and remember Jesus' body and blood. Let's join in the meaning of His Last Supper, so that we can enjoy it with Him in heaven. Amen. 

최후의 만찬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¹⁶⁾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²⁰⁾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14~20)



김성관 목사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사순절기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5~16).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랑, 풍성한 삶, 다가올 영원한 약속으로 인한 기쁨과 잔인한 배신, 극한 고통, 잠깐 동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실로 이 놀라운 최후의 만찬은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누가 이 단순한 예식 속에 것처럼 특별한 은총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만찬을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눅 22:18). 마태복음 26:29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목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못 깊은 만찬을 우리와 함께 나눌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 때까지 예수님은 만찬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참여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떡을 들고 감사기도 하신 후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눅 22:19).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몸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것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풍

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떡을 떼셨던 것처럼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1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증오했을 때, 그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 25:42~43).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오늘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만찬 후 정확히 18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매를 맞고 저주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때는 깨닫는 수 십억의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희생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나아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예수님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그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다

먼저 보잘 것 없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동안 세속에 묻혀 바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고향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교회를 언니와 함께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린 마음에 언니처럼 생개품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마음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가까운 교회를 다녔지만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낮은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단란방에서 생활하며 남편의 박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여 언니 식당에서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돈이 없어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자연히 시댁과의 갈등이 컸었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저의 우울증이 심해지고 잠을 이룰 수 없어 수년간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탓이었는지 계속되는 악몽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동네 찜질방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거의 10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온갖 잡념과 원한과 분노의 마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도 가기 싫어 한 달 이상을 집에만 박혀 있던 어느 날,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는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찜질방에 오던 제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물어 물어 저의 집까지 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 다

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의 안부가 궁금하여 며칠간 아파트를 뒤흔다시피하여 찾아주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이면 권사님을 따라 아무런 조건이나 바래 없이 무작정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작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약하기만 한 제 자신을 내려놓고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서로 연락조차 뜸하던 시댁에 스스로 전화하게 되었고, 그 동안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갯배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들도 저를 다시 봐 주었습니다. 지난 설에는 오래 전부터 시댁에 가졌노라고 다짐했는데 갑자기 3일 동안이나 눈이 온다고 하여 답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재발 고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출발 당일에도 주일2부예배를 드리고 나니 괜히 모를 괜안함이 생겼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출만하여 고향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지난 6개월여 동안 지회 집을 몇 번이나 찾아와 주신 믿음의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늦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만큼 더 열심히 많은 바 소임을 따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을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항상 저의 곁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성철(성도, 15교구)

새록새록 깨닫는
말씀의 은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나누던 부지역집단이 본 구역으로 복귀하시고 우리 구역도 다른 구역으로 개편되어 섭섭함과 또 새 구역식구들을 맞는 기쁨이 교차되었다. 이제는 가정경제의 조달자가 되어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었지만 우리는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이면 <충현의 만나>에 있는 구역예배교재를 펴고 말 그대로 '만나'를 먹고 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충현의 만나>에 감사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추어 이렇게 잘 주시는지 말이다.

우리의 구역예배는 전체적으로는 구역장이 진행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소제목 하나씩을 맡아 인도한다. 이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다. 각자의 소박한 신앙고백이기도 하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구역예배 때 '주께서 다스리심을 알 때 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제목을 읽던 집사님이 '미태복을 11장 28절~30절 말씀을 암송하시요.'란 지시문을 따라 <충현의 만나>에서 눈을 떼고, 앞을 바라보며 암송하는 것을 보며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보일 뻔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새록새록 깨닫는다. 나의 죄로 어두워지고 흐려졌던 부분들을 주님은 거룩하신 보혈로 씻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주님의 모양으로 하나하나 세워 나가심을 알게 되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이 어찌 그리 감사하리요!"

정성인(집사, 4교구)

이제야 다시 찾는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충현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나의 감정은 남다르다. 충현교회의 세례교인인 나는 직장을 정리 퇴임하고서야 주일참수를 온전히 하는 교인으로 돌아왔다. 직업이 신문을 편집하는 일이다 보니 주일에 근무해야 했고, 교회와 멀어져 지냈다. '충실한' 세상 속의 사람이 되어 앞만 보며 싸우던 세상의 전부를 멈추고 돌아설 때 나는 곧 실패한 같았다. 긴 세월이 지난 후 허열게 성진 머리로 옛 기억을 찾아 다시 문을 두드린 곳, 그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었다.

충현교회를 들어서면 그 숙연한 분위기와 함께 인간의 말을 뺀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다. 주님의 언약계 앞에 서고 그 정의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주님의 인간의 소리를 가득하고 이벤트성 축제만 있는 다른 곳들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 거룩적인 아우성도 없다. 단지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함, 그것이 전부이다.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구원' 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굳게 하는 뿌리가 된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나에게 부르심이 있었다. "주여, 당신을 이제야 다시 찾는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작년 한 해, 주님은 나를 계속 불러주셨다. 단기선교, 찬양대, 외선부 봉사, 구역예배 등 주님과 나의 계속되는 만남에 나는 확신한다. 주님은 나를 진정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알갑수(집사, 16교구)

오늘도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농아인들과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수화가 필요하다. 수화는 농아인들의 소중환 언어이다. 교회 강단에서 섰포되는 복음도 이 수화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다. 나는 수화를 통해 농아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통역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간절함이 사라졌다. 내게 수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기 부인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자가 기능적으로만 손을 움직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기 부인이 멈추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에 신앙의 계로를 벗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오늘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자기 부인의 에너지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아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로 허락하신 수화를 통해 그 은혜의 복음이 사랑하는 농아인들에게 전달되기 기도드립니다.

최진원(집사, 예바다부)

말씀까지

예수님의 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외선부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수련회를 갖는다. 명절이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그들이 안쓰러워 보이겠지만, 고향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 수련회를 마친 뒤 그들이 서문 한국말로 나는 은혜를 그대로 옮겨 보았다.

전도하러 가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성 질환 1,2급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만 깜빡이면 사람, 코를 통하여 호스로 밥 먹는 사람, 말은 할 수 있어도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침대에서 종일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1년이 지나가도 방문객이 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는 틈틈이 전도를 합니다. 환자 중에는 사도신경을 잊어버린 집사님, 권사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도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또 올해 1월 초에는 옆 병실에 계시던 분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고 하소연하시더니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담당하던 환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기쁨을 나에게서 찾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열악한 곳에 저를 보내셨는지!

지금은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에게 1:1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영접기도를 하게 하고 더욱 극진히 보살핍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깨어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날 때 영혼구원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때마다 구호를 외칩니다. "전도하러 가자!" 이곳이 황금기장입니다. 물고기가 가득 누워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10년이면 주님이 원하신 때까지 쓰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 노예입니다.

최금진(서울, 17교구)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나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었다. 올해 선교 주제가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 전하자.'였는데 예분찬양에 임원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팀원들 중에 유독 나만 힘든 줄 알았지만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팀원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원망하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로 항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고난 자체를 기뻐하진 못했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선교를 준비하였다.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못하는 일 없으리라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고, 말처럼 쉽지 않았다. 다음날, 사역할 학교 주변으로 정탐을 갔다. 그리고 다른 팀원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와 나이가 비슷해서인지 말이 잘 통하고, 말 걸기가 쉬웠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즐거웠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등과 같이 우리에겐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말들을 현지어로 전하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여러모로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복음만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첫 선교를 이번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 전도했던 영혼들의 믿음이 전국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또 선교지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조진태(고등부 1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2팀	전종일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9팀	정재영
2월 10일(월) ~ 2월 18일(수)	대학부 4팀	문정숙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1부 1팀	김영은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1부 2팀	배종락
2월 23일(월) ~ 2월 28일(토)	중등3부 1팀	박재현
2월 23일(월) ~ 3월 3일(월)	청년1부 1팀	이순기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저는 이번 외선부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 동안 일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꼭 이해야 할 상황이었어서 저의 마음은 많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에 사장이 휴가를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떠나며 마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첫 날 주일예배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 날 새벽예배를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분당 1층, 위임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선부가 2층에서 예배 드렸지만 저는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붙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말을 거의 다 모르고 옛날 자매님과 러시아 성경책을 보면서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30분 동안 마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기도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야간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익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기도를 합니다. 주일 저녁에는 교회 근처에서 잠을 자고 우리 교회에서 꼭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다자(외선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와와 바를 수 없네.” 2009년 첫날부터 7월 여름철의 부흥의 시간에 불렀던 은혜로우는 찬송이다. 찬송 찬을음 부르기 전까지의 내 마음은 세상 이 주는 여러 가지 열등로 인해 잠시 지쳐있는 상태였다.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지난 수련회와는 달리 가슴이 막막하여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찬송 찬이 간간히 흐르면서 내 마음 그대로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혼란하고 많이 지쳐 있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가 깨어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첫날부터 모든 지체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했다. 요즘 마태복음의 열매로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묵상하고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이 떠올랐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로소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든 좀 말하든 내가 가슴을 치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했던 이복직인 신앙을 소유한 나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외식적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외식적인 가면을 벗고 내지 이 시기를 잊으셨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내 자신이 깨어지길 원해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내 감정만을 채우기 원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사랑을 다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만을 쫓아 나의 정욕대로 살던 나의 외식성을 철저히 회개하자 마음의 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고 표현 할 수 없는 은혜였다.

“세상 줄기를 다 버리고 세상 자람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바라는 없네.”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시
구거만을 생각했다. 하여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러다 십자가가 정답이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 날이 미련한 자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스도도 예수의 종으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 정말 기도하기는 순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그스도도의 화가 될 것을 소망했다.

유연인(청년1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들은 그 자체가 큰 부마이다. 본능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의지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아는 것과 좀 심해서 구원받았는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고민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다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질문이었다. 이러한 중에 지난 달 3월 14일 1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물음을 주셨다. 특히 예전부터 잘 알고 좋아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 나누어보면서는 내 심 속에서 느끼지는 않는 열의 없이 바나 믿을 때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믿음이 없으면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이전에는 내가 복음을 자랑할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이 말을 통해 내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라든 때 때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외면했음을 발견했다.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 왔다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여전히 갈급한 영혼의 문제와 학파와 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난 날 말했듯했던 믿음 없음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수련되어 왔던 존재.

모든 수련회와 과정이 즐겁고 감사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시간은 역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녁 부흥회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더 이상 내 삶에 겹쳐서 여기저기 아니하고 주님께 100% 내어드리기 하며, 이를 위해서 시간들은 현재의 믿음생활 가운데에서도 곧 믿 거름으로 남았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 재물이 아닌 내 믿음과 삶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위해 기뻐했던 대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이루어 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 대학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다. 수련회 모든 과정에 분별히 주님께서 살아계셨고 각각의 영혼에 맞는 주님으로 특별하게 입재 하셔서 그들의 삶에 감동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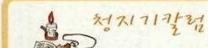
수련회를 다녀와서 내 힘이 180도 변한 것은 아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열정적으로 넘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느꼈던 은혜는 잔잔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수련회와 밖은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워진 것만 다를지나, 당시에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받은 부분에서 너무나 변화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발견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믿는다.

김대운(대학부)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연도	성명	교수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수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수	소속부서	인도자
245	로베르토	25	외신부	256	최진수	1	고득부	오정철(1)	267	이유선	15	청년2부	태명자(1)	
246	카를리나	25	외신부	257	최학민	18	청년1부	남종호(1)	268	정준희	10	청년2부	김정림(3)	
247	알빈	25	외신부	258	박미숙	17	청년2부	김유자(24)	269	김경희	10	청년2부	김정림(3)	
248	장	25	외신부	259	배지영(1)	17	청년2부	이희라(14)	270	김정희	10	청년2부	김정림(3)	
249	조지	7	청년1부	260	김희자(7)	260	김진보	14	271	조은	9	고급부	김정림(3)	
250	갈문	7	청년1부	261	문준식	7	청년2부	박용호(1)	272	이상민	17	청년2부	김정림(16)	
251	노영	25	사법부	262	안병일	15	청년2부	양갑근(16)	273	우석재	3	청년1부		
252	정미선	23	청년1부	263	양정림	15	청년2부	양갑근(16)	274	김다슬	19	유1부	박정순(19)	
253	진도식	12	중년3부	264	최광근	2	청년2부	김학하(19)	275	박정혜	16	청년1부	박정순(20)	
254	김정민	15	중년3부	265	김정민	13	청년2부	김정민(1)	276	정준하	17	청년2부	이영순(1)	
255	김정민	15	중년3부	266	조은	13	청년2부	유성민(17)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게 예수님은 찾아 오셨습니다(고전 2:12). 우리 주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고 말씀하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총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렐 18:4).

교구 자원봉사팀장 시절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 써주신 힘을 주시던 가르침, “주님 안에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자라 내다 주셨으니 주님, 대결대로 쓰시렵니까? 빙자하고 쓰시겠습니까?”라고 하신 대우더 천안 물결은 쓰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되실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비워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와 교회의 교사로 천사와 같은 어떤 영혼들과 만나 주님께 감사하오니 매 주일 찬양 찬수의 회화를 드으며 나 자신을 회개하고

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고, 세상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삼 아래 게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끼기를 먹나이다'(막 7:28)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과 온층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매달린 수로비로써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말씀으로 회개하며, 부를 물게 하심으로 믿음을 기억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외치며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길이가 70~80년 이에도 아직 주님의 남은 삶에 미련을 두는 죄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 자신이 부인 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며 한 결을 걷는 결을 지킬 줄을 깨닫게 하시어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시 90:10). 그 빛난 영광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예수를 만난 기쁨의 흥남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입술에 말씀을 담고 주시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는 종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하시고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외친 복음을 허락받은 주님의 교회를 아람대로 세우게 하시고 약화하지 않고 주님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김성호
(장로, 5교구장)

1. 모집부문 특수교사 새교교원[24~35세]으로서
특수교사 유치·초등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장학·영유아·아동교육 경력자 우대
2. 제출서류 이력서(자신부족),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당회장 추천서(타교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3. 제출마감 2월 25일(수) 17:00까지
4. 서무대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흥천교회 서무국
☎552-8200(※401)

월	일	주요예배 (절로)					찬양예배 (만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3	8	김장국	배운식	박대만	김철환	박국공	양효민	이수자	박근우
	1	박종용	조광일	신상수	이규형		박노의	황희희	장민우
	15	김단용	이철호	전홍렬	김영은	김연태	이인용	홍복기	구영환
	22	이달용	장기수	유성식	서영석	김영은	배종운	김경희	이정호
	29	황기범	양기주	전대만	유상태	구재환	구원철	김영희	

	2/23 (월)	2/24 (화)	2/25 (수)	2/26 (목)	2/27 (금)	2/28 (토)	3/1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이창호	이순식/김영환	양재용/박원화	안치원/김철남	윤인영/김민석	안원찬/이복순	황진필/전영환
주 제	마 11:20-25	호 2:1-13	요 1:29-39	요 2:13-25	골 13:1-9	마 16:13-21	고후 5:17-21
주 제 교 구		호 2:1-13	1, 15, 24교구	2, 7, 16교구	3, 8, 17교구	매 16:13-21회	매 5:17-21회

날짜	여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25	수요 I	이제라도(송 21:2-14) 김성관 목사	유재진	이미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호산나 찬양대)
2/25	수요 II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가(눅 23:27-31) 박익인 목사	김현정	김영숙	영화로운 주 예수님의(실로마 찬양대)
2/27	금요일	김성관 목사	김근영		예루살렘 찬양대 / 풀꽃 김하은 / 바리몬 서준성
3/1	주일 I	최후의 만찬(눅 22:14-20) 박용원 목사	강호성	김정국	(예배 전 찬양)
3/1	주일 II	최후의 만찬(눅 22:14-20) 유계진 목사	정진섭	배춘식	갈보리산 위에 의 / 풀꽃 노은영(전인 연주자)
3/1	주일 III	최후의 만찬(눅 22:14-20) 김성관 목사	황진호	박상대	천부마 의지 없이서 의 / 풀꽃 노은영(전인 연주자)
3/1	주일 IV	최후의 만찬(눅 22:14-20) 장 훈 목사	하종철	김철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소프라노 임화숙(아련 찬양대) 솔로이스트
3/1	주일 V	최후의 만찬(눅 22:14-20) 양재웅 목사	유창원	박용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의 / 바리몬 오성민(찬양대) 솔로이스트
3/1	주일	스바의 여왕(창상 10:1-13) 김성관 목사	최영진	양효민	만도린 연주대 / 3/3주

기도원진희 아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자정 10:30	금요찬양집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유수족어, 오로 1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는 스페인어, 히브리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와 통역해 드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 간	합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장부	오후 12:15	갈림길 회
장부	오전 11:00	북치남 지하1층
다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	(주) 오전8:30~오후 6:00 (관) 저녁6:30~일찍 9:00	성리관 1층
양육부	오후 12:10	배다니 놀
인근교부	오전 11:00	야 맬 놀
오전도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내원이점	주간교육료	제1교육관 107호
내원이점	주간교육료	충원복지관

노봉현	이훈	김종우	이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이석	이정현	전종용	전종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한승균	한승원	이영우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정영만	김정우	최희준	이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이석	박기우	권병욱	조호환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김달남	이호호	최치훈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정영진	김성우	고희재	한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이영욱	김철남	김승준	함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정영현	안현현	김진근	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임정식	전진호	장기우	장기우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석영익	구광현	송수민	유지태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김정석	신정훈	정종수	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오도영	이우진	김기태	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김종호	정철병	정종동	이영우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정영진	이진호	이석재	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이철원	유지환	최희준	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류기민	박성진	이복	지정호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장학사

부 록 A					
차신득 신경숙(유곡)	박기진 홍희숙	정진호 제과구(유곡)	김익환 이국주	장 훈 이국주	이희식 신경숙(유곡)
김단우 이국주	안원진 이국주	정승진 이국주	양재호 이국주	이성진 이국주	
안동현 이국주	이재영 이국주	홍유진 이국주	유재진 이국주	김영구 이국주	
박덕양 이국주	최정진 이국주	유원철 이국주	박정현 이국주	김한수 이국주	
배옥진 이국주	김성진 이국주	박희정 이국주	강현철 이국주	이광현 이국주	
박기환 이국주	홍우찬 이국주	김근영 이국주	박진수 이국주	최현철 이국주	
김영은 이국주	정민진 이국주	김정숙 이국주	이혜원 이국주	안인환 이국주	
유석민 이국주	송재호 이국주	김성현 이국주	홍은미 이국주		
■ 전년도자					
김민준 이국주	유인숙 이국주	김연식 이국주	홍은혜 이국주	김우주 이국주	김말자 이국주
전은배 이국주	김정자 이국주	김연희 이국주	최은희 이국주	전은희 이국주	이국주 이국주
박상대 홍희숙	김경희 이국주	이복순A 이국주	류진희 이국주	한성진 이국주	임태주 이국주
박상식 이국주	김경호 이국주	유미자 이국주	이복순B 이국주	정현희 이국주	이혜숙 이국주
김연태 이국주	황완민 이국주	김정훈 이국주	강옥빈 이국주	전영희 이국주	서명환 이국주
이성섭 이국주	조현영 이국주				
■ 회원부지도 신명식					
■ 전임부지도자 장은선 김갑섭					
■ 전임부지도자 서준희 노은영					
신 교 사 송효환					